

美, 휘발유세 인상 검토 본격화

美國은 세수확대조치의 일환으로 휘발유세 및 디젤유세 인상의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으며, 그 인상폭은 갤런당 10~15센트 정도가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OPEC의 Subroto 사무총장이 소비국 특히, 美國의 소비세인상을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이번 인상검토의 이유로는 재정적화의 악화와 석유소비감축, 그리고 에너지안보 등의 절박한 사정을 들 수 있다.

세계최대의 석유소비국(휘발유의 경우 50%)이자 수입국인 美國의 석유세계개편은 국내시장은 물론 세계 석유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 美의회와 행정부가 검토중인 석유세로는 휘발유 및 디젤유세 인상, 석유수입세 신설, 에너지사용세 등이 거론되고 있으나, 행정부는 일단 휘발유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의회의 추산에 따르면, 휘발유세가 15센트 인상될 경우 매년 129억달러의 세수확대가 예상되나, 그 이상의 인상은 저소득층의 부담 때문에 한계가 있다.

휘발유세의 인상효과는 그 인상폭에 의해 좌우되는데,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10~15센트 인상으로 1~1.

5%의 석유수요감축이 초래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휘발유세의 인상은 燃費가 높은 자동차의 개발·생산을 촉진, 수요감축효과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폭되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0만B/D의 휘발유 소비감축은 20만B/D의 원유감축을 유도할 수 있다.

국내외의 예상되는 반발에도 불구하고 부시행정부와 美의회는 인상방침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는데, 현재 美國의 휘발유세율이 타선진국의 50~70%에 비해 극히 낮은 수준인 29.9%(1989년)인 점을 감안하면, 인상의 당위성은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에너지동향〉

주요국의 휘발유가격중 세금비중

(단위 : %)

	1980	1986	1987	1988	1989
프랑스	58.0	73.9	75.3	77.0	74.6
서독	48.7	61.5	62.8	64.3	65.0
이탈리아	61.4	78.2	78.2	78.7	75.9
영국	46.3	63.9	64.1	67.1	63.6
일본	36.7	43.9	44.6	46.6	46.6
미국	11.3	32.7	30.2	31.2	29.9

〈자료〉 IEA, "Energy Prices & Taxes"
(연방, 주, 지방세 포함)

에너지稅 인상 및 신설에 따른 세수전망

(단위 : 10억달러)

	1991	1992	1993	1994	1995	1991~1995
휘발유/디젤유 (12¢ 인상)	12.1	11.6	11.4	11.6	11.7	58.5
석유수입세 (5\$/B 신설)	8.5	8.8	9.2	9.8	10.5	46.9
에너지사용세 (5% 징수)	14.2	15.0	16.0	17.0	18.1	80.2

〈자료〉 Congressional Budget Office

